

모순어법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조명*

이 정 호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1. 들어 가는 말

우리는 추운 겨울 날 공중 목욕탕의 뜨거운 욕탕 안에 들어 가면서, “아! 시원하다!”고 감탄사를 발한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 가면서 차다는 의미를 가진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쓰다니,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는 자기 모순이거나 불합리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치에 맞는 진술”¹⁾을 역설(paradox)이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가 이러한 예에 든다. 위의 경우는 역설적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욕탕 속의 뜨거운 물은 온도로 봐서는 뜨거울지 몰라도 이 뜨거운 물이 몸을 시원하게 풀어 준다는 의미에서는 “시원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경우는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역설적인 발언이 일상 용법에서 반대말인 두 용어를 결합시키면, 그것을 모순어법(oxymoron)이라 부른다.”²⁾ 예를 들면 “기분좋은 고통(pleasing pains)”이라든지 “나는 몹시 열이 나고 오한이 난다(I burn and freeze)” 등과 같이 서로 다른 개념의 단어들 이 서로 결합한 경우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상위 개념인 역설과 하위 개념인 모순어법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모순어법이라는 말을 쓰겠으며, 이러한 모순된 상황과 어법이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모순어법은 왜 문제인가?

그러면 모순어법은 서양문학, 특히 영문학에서 왜 문제인가?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한 듯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질문은 아니다. 더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서양 사상의 근본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모순어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서양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 되는 이성(reason, *logos*)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서양 사고의 제일 큰 전제는 모든 것은 합리적인 이성에 의하여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큰 것은 작은 것보다 크며, 위는 아래보다 높다는 아주 쉬운 이치도, 곧 이러한 이성의 작용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다. 또한

* 이 논문은 1992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대우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이명섭, 《세계 문학 비평 용어 사전》(서울: 을유문화사, 1985), p. 342.

2) 이명섭, pp. 342-343.

세상에는 원인(cause)이 없는 결과는 없으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인을 찾아가면 해답은 나온다는 생각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저절로, 즉 동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된 것은 없다. 이는 방귀 냄새가 있으면 반드시 방귀를 뀌 사람이 있게 마련이며,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든 그 무엇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양 철학(또는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원인(*prote aitia* [Gr.], *causa prima* [L.])라는 것이다. “즉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하여 움직여지지만 이 원인·결과의 계열을 끝까지 추구하면 궁극에는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는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순수형상이고 자기 이외에는 사유의 대상을 가지지 않는 사유의 사유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이 만물의 창조자·지배자로서 제 1원인으로 된다.”³⁾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이 제일원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이 제일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성과 합리성이다. 그러므로 서양 사상의 근본은 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이다. 이와 같이 이성 중심적 사고가 강하게 지배하는 서양에서 서로 모순되는 상황이나 표현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러한 이성중심주의가 낳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분법적 대립항(binary opposition)으로서의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면 선에 대하여 악은 대립항이며, 밝음에 대하여 어둠은 대립항이다. 이러한 대립항은 단순히 대립항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립항은 다른 대립항에 우선하며 또한 다른 대립항을 억압한다는 사실이다. 서양의 사고와 사상에 이러한 우선과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의 틀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성 중심주의에 기인한다. 이러한 대립항은 우리 주위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사고의 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몇 개의 대립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신/인간, 천사/악마, 전/후, 남/녀, 노/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모순어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이성에 근거한 위계질서가 명확한 대립항에 위계질서의 근본이 되는 이분법적 대립항의 벽을 허물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인간이라는 대립항에서 신은(+신성)이지만 인간은(-신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립항이 성립될 수 있으며, 왼쪽의 대립항은 언제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의 대립항은 언제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모순어법에서는 이러한 벽이 없어져 버렸다. 위에서 보았던 “기분좋은 고통(pleasing pains)”의 예를 보기로 하자. 여기서 대비해서 놓여진 즐거움과 괴로움을 이분법적 대립항으로 배열하면 즐거움/괴로움이 된다. 여기서 즐거움은(+즐거움)이지만 괴로움은(-즐거움)이 되므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는 이 둘은 서로 엄격히 분리돼 있고 또한

3) 《세계 철학 대사전》(서울: 교육출판공사, 1989), p. 984.

넘지 못할 벽으로 인하여 서로 차단된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순어법에 오면 즐거움도 (+즐거움)이 되고 괴로움도 (+괴로움)이 되어 즐거움은 괴로움을 억압하거나 우선해야 할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한다. 이 두가지의 서로 다른 요소들은 각각의 (+) 가치를 가질 뿐, 어떤 것에 대하여 (-)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다른 것에 우선하고 또한 억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모순어법이 타파한 억압구조이다.

그러면 어째서 모순어법에서는 이성중심적인 억압구조가 맥을 못쓰게 되는가? 모순어법은 그 성질상 지금까지 위세를 떨치고 권위를 자랑하던 이성에 대해 반이성(counter-reason)으로 작용하여 이성에 반대하기까지하는 반이성(anti-reason)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이성중심적인 사고에서는 이성/감정이라는 대립구조가 성립하고, 이성은 감정에 우선하고 감정을 억압한다. 이는 또한 정신/육체라는 이분법도 같은 맥락에서 가능하게 하여, 정신과 이성이 모든 사유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그러나 모순어법에서는 어떠한가? 모순어법에는 중심이 없다. 즉,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특질이 주도권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이들 둘에게 모두 주도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권력의 중심은 둘이 되는 셈이다. 중심이 둘이라는 얘기는 중심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 되며, 이는 또한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항목들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열이나 진위를 가리는 위치에 있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병치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위나 우월 등의 단가적인 기준에만 의존하여 수직적으로 그리고 종속의 관계에서만 작용하던 이성은 모순어법의 상황에서는 그 위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도무지 모순어법적 상황은 이성의 이와 같은 흑백논리의 작용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린 뜨거움(freezing and hot)”이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이 두 개의 복합관념의 어디에도 중점이나 중심은 주어지지 않으므로, 이 표현의 순서가 바뀌어 “뜨거운 시린(hot and freezing)”이라고 해도 의미의 변화는 초래되지 않는다. 이는 곧 모순어법에는 중심과 우선권이 없으며, 따라서 억압구조가 작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모순어법이 이처럼 이성중심적인 사유의 작용을 거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서구의 관념론적인 우월성에 그 원인이 또한 발견된다. Plato의 이원론적인 관념론은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개의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은 이상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이성의 작용의 영역이며 관념의 영역이기도 한 이론(theoria)의 영역은 실제(praxis)에 비하여 자연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곧 실제의 영역이 이론의 영역에 종속화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실제의 영역은 이론의 영역의 영향 밑에서만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누리는 실제의 영역은 왜소해지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므로 Plato의 공화국에서 시인은 이성이 아닌 영감을 받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어 추방되었으며, 시인은 이상적인 의자의 그림자인 실제의 의자를 그리는 사람으로 여겨져, 이상으로부터

터 세 다리나 건너 뛰어져 있는 의자를, 즉 삶을 묘사하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과연 시인은 이성이 아닌 영감(inspiration)을 받았으므로 미친 사람이며, 그가 하는 시적인 작업은 이상적인 의자를 세 다리나 건너 뛴 그림자의 그림자를 묘사하는 헛되고 부질없는 작업에 불과한 것인가? 이러한 생각은 이성에 의한 감정의 억압이며, 이론에 의한 실제의 억압일 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싸우고, 고민하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실제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실제의 세계는 곧 문학의 몫이며 이는 또한 모순어법의 장이기도 하다.

삶의 장은 논리나 이론에서처럼 명확한 구분과 우열의 정도를 가릴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곳이다. 이곳은 절대적인 진리가 유일무이한 가치로 여겨지는 곳이 아니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서로 엉켜 있는 모순어법의 장이기도 하다. 단순히 이론의 장에서만 명쾌하게 보여졌던 논리나 이성은 삶의 장에서는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삶의 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다. 인간이 하기 어려운 오직 초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초인간적인 일도 그것을 이룩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는 모순을 간직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반면 세상에 없는 아주 극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보통 사람임을 알게 되고 우리는 놀란다. 그러므로 삶의 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분명하고 확연한 구분이 없어진 모순의 장일 뿐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예는 Graham Greene이 즐겨 다루는 인물들의 예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보여 주는 Whiskey Priest(위스키 신부)의 예는 아주 두드러진 예이다. 그러나, 좀더 설득력이 있는 예를 우리는 Sophocles의 《오이디푸스 왕 *Oidipous Tyrannos; Oedipus the King*》에서 보기로 하자.

《오이디푸스 왕》은 흔히 비극적 아이러니(tragic irony)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전으로 꼽힌다. 아이러니의 근본적인 뜻을 주장과 사실 사이의 괴리라고 본다면, 아이러니도 모순어법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모순어법은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말이나 상황이 가까이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라면, 아이러니는 둘 사이에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에 그 차이점이 있을뿐, 모순어법과 아이러니는 모두 삶의 모순 상황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오이디푸스 왕》은 우리의 삶이란 명정한 이성으로써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잡다한 요소들이 뒤엉켜 있는 모순의 상황임을 보여 준다. 오이디푸스는 테베(Thebes)의 성문 앞에 서있는 스피르크스(Sphinx)가 낸 수수께끼를 풀음으로써 보여 주듯이 대단한 지성의 소유자이다. 스피르크스가 묻는 질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는 아침에는 네 발로, 점심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이나고 묻는다.

이에 오이디푸스는 그것은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오이디푸스는 그의 지성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음으로써, 그가 스피르크스를 물리치고 폐허가 된 테베를 구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결과에 관심이 있었겠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수없이 많은 수수께끼 중에서 하필이면 스피르크스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에 있다. 이는 인간의 삶 자체가 이 수수께끼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아주 복잡한 수수께끼이며, 모순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삶의 모순이 그의 명철한 이성으로 풀릴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스피르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음으로써 자신의 이성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던가?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의 이성에 패한 괴물인 스피르크스가 패주하는 낭패의 모습을 보지 않았던가? 여기서 스피르크스는 무엇인가? 스피르크스는 이성으로써는 풀리지 않는 삶의 불가사의한 모순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아닌가? 이러한 오이디푸스는 테베를 폐허로 몰아 넣은 <범인>을 자기 손으로 기어이 잡아야 말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고, 또한 이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에게 신탁이란 아무 의미도 없다. 신탁이란 단지 무지한 사람들을 겁주는 것일 뿐 명철한 이성 앞에서는 쪽도 쓰지 못한다고 믿는다. 그 자신의 신탁을 보라.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어림도 없는 신탁을. 그는 이 경우 단지 신탁을 피하여 대꾸하지 않고 무시하기만 하면 된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신탁은 이성적인 대꾸로 물리칠 가치도 없이 그저 무시함으로써 죽할 것이다. 그는 그래서 그가 나서 자란 고장인 코린스(Corinth)를 피해 테베로 오지 않았던가? 그에게는 이런 허무맹랑한 신탁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이제 자신의 나라가 된 테베를 환란에서 구하는 일이 더 급하다. 그것은 곧 전왕인 라이우스(Laius)의 살해범을 하루 속히 잡는 일이다. 그의 명석한 두뇌로는 범인은 자신의 손 안에 있으며, 이를 잡는 일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이 범인이 자기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오이디푸스는 눈먼 현인인 티레시아스(Tiresia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성만을 믿고 끝까지 범인 색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범인 색출의 과정은 오이디푸스에게는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는 결국 자신이 바로 라이우스의 살해범이며, 라이우스의 왕비였고 지금은 자신의 부인인 요카스타(Jocasta)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고 자신의 눈을 찢러 멀게 하는 장면에서 이 극은 끝난다. 여기에 바로 이극의 비극적 아이러니가 있다. 눈이 먼 오이디푸스는 이제 더 이상 분명하고 명징한 이성의 힘을 믿지 않고 삶의 모순을 뚝뚝그려 보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다. 밝은 눈을 가졌을 때의 오이디푸스가 이성에만 집착했다면, 이제 눈이 먼 오이디푸스는 맹목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보는 지혜의 눈을 얻게 된 셈이다. 오이디푸스는 이제 더 이상 상/하, 좌/우, 선/악 등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시력은 잃었으나, 위와 아래, 왼편과 오른편, 착함과 악함이 단지 상대적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눈먼 지혜 속에서 알게 된 것이다. 이제 그는 모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모순을 모순 그 자체로 보는 눈을 잃고 나서야 가지게 되

는 모순을 경험하게 된 셈이다. 그는 눈땀은 다른 의미의 눈땀을 가져온다는 모순에 이제 눈뜨게 된 셈이다.

3. 모순어법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조명

모순어법과 모순어법적 상황은 문학의 오래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모순어법은 그 본질에 있어 긴장을 내포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플롯(plot)의 전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갈등(conflict)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어법은 신비평(New Criticism)의 비평이론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되었다. Allen Tate가 쓰는 tension이란 용어도 그 근원에는 이러한 모순어법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그가 쓴 tension은 내포라는 의미인 intension과 외연이란 뜻인 extension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끝부분인 tension에서 따서 만든 문학용어이다. 그에 따르면 “훌륭한 시의 의미는 그 tension, 즉 우리가 그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외연(extension)과 내포(intension)의 전 조직체”⁴⁾라고 말함으로써, 시의 역동성은 모순구조가 일으키는 긴장과 갈등의 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Cleanth Brooks는 그의 《잘 빚어진 항아리 *The Well Wrought Urn*》에서 마찬가지로 시의 언어는 역설(paradox)의 언어임을 보여 준다. 과학자는 논리와 명징성과 분열되지 않은 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가 쓰는 언어에는 역설적인 요소는 말끔히 씻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인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 유일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의 언어는 모순의 언어이다. 또한 그가 말하는 진리는 그러므로 “역설의 언어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⁵⁾고 말한다. 신비평가들이 보여 준 역설과 아이러니와 같은 모순어법적 상황에 대한 관심은 그러나 이러한 문학장치로서의 기교에 대한 관심일 뿐 이러한 상황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아니다. 신비평가들은 단지 역설과 아이러니가 문학의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 내는가에 대해 지극히 이지적인 관심을 보였을 뿐이다.

모순어법에 대한 관심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비평이론에서 더 적절히 찾을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가 어떤 것인가는 설명의 필요상 아주 간단히 짚어 보기로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대개의 평자에 의하여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의견이 크게 유행되고 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론이나 논리가 우선하는 시대이기 보다는 실체가 우선하는 시대이다. 이는 이차 대전을 겪는 동안 세계의 인류가 겪었던 처절한 전쟁 경험에도 유래하는 것으로, 이성이나 논리는 인류에게 이익을 주기 보다는 오히

4) 이명섭, p. 471.

5) Cleanth Brooks, *The Well Wrought Urn*(N.Y.: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5), p. 3.

러 파괴와 공포를 가져다 준다는 뼈저린 경험에 그 뿌리가 있다. 인류는 인간의 이성이 만든 가공할만한 무기의 위력을 보고,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인류의 장래에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전쟁의 폐허 뒤에 오는 허무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성이 만들어내는 이항대립적인 사고방식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담아내는 이론가들로 우리는 흔히 포스트-구조주의자(Post-Structuralists)라고 부르는 Derrida, Foucault, Lyotard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Derrida의 이론은 탈구축(Deconstruction)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의 이론은 각기 다르고, 또 쉽게 요약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의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포스트-구조주의자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이들의 생각은 구조주의에서 변천 발전하여, 결국에는 구조주의에 반기를 든 이론이다. 구조주의의 근본 개념은 의미의 생성은 지시어(signifier)와 지시대상(signified)의 1대 1의 연결이 기호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 사이의 작위적인(arbitrary) 관계에서 나온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개라는 영어단어인 dog은 개라는 실체와 1대 1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dig나 dot 등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서 그 발음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정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dog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쓸 경우에도(예를 들면 dit) 이 단어와 개라는 실체와의 유기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는 개를 가리키는 단어로 가능하다. 이 경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언어가 갖는 의미는 지시어(signifier)와 지시대상(signified)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시어들 사이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구조주의는 후에 포스트-구조주의에서 더 멀리 발전되는 생각인 구조에는 중심이 없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생각은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순어법에는 중심이 없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결국 포스트-구조주의에서 말하는 중심부재라는 사실은 모순어법의 중심부재와 맥을 같이 하며, 이는 모순어법을 새롭게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와 같은 중심부재에 대한 관심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담론이 차지하는 중요성에서도 발견된다. 담론에 대한 고찰은 모순어법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된다. 우선 여기서 <담론>이라고 번역한 말은 영어와 불어에서는 discourse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쓴 것이다. 이 discourse라는 말은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담론이라는 번역말고도 담화, 언술, 언동, 언술행위, 언철 등이 모두 이 discourse의 번역이며, 이 중 어느 것도 틀린 번역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Foucault는 그의 《지식의 고고학 The Archaeology of Knowledge》를 가리켜 <담론들에 대한 하나의 담론 a discourse about discourses>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삶의 모든 형태와 범주”⁶⁾를 지칭하는 말이다. 담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이

6) John Sturrock, ed., *Structuralism and Since: From Levi-Strauss to Derrida* (Oxford: Oxford U.P., 1979), p. 82.

단어의 어원을 보기로 하자. 원래 discourse는 dis-와 course라는 두 부분으로 쉰다. dis-는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in different directions>라는 의미가 있고, course는 라틴어의 currere에서 온 말로, 이는 <달아나다 run>라는 뜻이 있다.⁷⁾ 그러므로, 이 두 부분을 합쳐 보면 discourse는 <여러 방향으로 이리 저리 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discourse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종잡을 수 없이 말한다는 뜻이 된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의 쓰임새와는 다르다.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적어도 논리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있게 전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누가 이러한 전제에서 벗어나 아무 얘기나 이것 저것 종잡을 수 없이 지껄인다면, 이는 허튼 소리라는 명칭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때, discourse는 곧 <허튼 소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허튼 소리라는 뜻이 있는 discourse라는 단어를 담론이라고 점잖게 번역해도 되는 것인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가의 문제보다는 왜 이런 뜻의 말을 써야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말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상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특히 이러한 경향은 사고의 도구로써 언어를 중요시하고 있는 서양 철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성 중심적인 전략은 이성의 반대 측면인 감정을 억누르고 나서야 가능하며 이러한 전략으로는 말이 삶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없음을 Foucault는 알게 되었다. 이 경우 말이 담아내는 것은 단지 굴절된 삶의 측면이며, 이는 또한 이성의 틀에 맞추어 표현된 현실일 뿐이다. 말이 이렇게 삶을 왜곡되게 담아내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Foucault는 허튼 소리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된 discourse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술취한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자신도 술에 취해야 하는 것처럼, 삶을 있는 그대로 담아 내려면 논리화되지 않은 말의 장치, 곧 <담론>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담론에서는 근본적으로 이성과 논리에 기초한 이성중심적인 논리구조를 배격하고, 종잡을 수 없는 말을 그물로 삼아, 그 그물이 곧 현실이며 또한 현실을 담아 내는 그물로 쓰이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순어법이 담아 내는 삶과 담론이 담아 내는 삶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4. 모순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Keats의 Negative Capability

그러나 모순어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모순을 있는 그대로 놓아 두는 바탕을 전제로 한다. 모순을 이성의 작용이나 논리의 힘으로 억압하는 경우에는 모순이 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러므로 노자와 장자가 그리고 선(禪)에서 말하는

7) Sturrock, p. 82.

빈 마음(虛心)이다. 이러한 빈 마음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별심이 없어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여기서는 그러므로 논리나 이성에 의하여 사물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대단히 혐오한다. 이러한 빈 마음의 상태를 Keats는 negative capability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빈 마음이 되면 “우리는 [확실한] 사실이나 이성을 붙들려고 안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불확실성이나 신비스러움, 그리고 의심까지도 그대로 우리속에 품을 수 있게 된다”⁸⁾고 Keats는 말한다. 그는 인생을 모순이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즐거움과 고통, 삶과 죽음 등은 서로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삶은 넓은 의미의 모순어법이였다. 그가 묘비에 새기가 위하여 쓴 자신의 다음과 같은 묘비명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여기 물로 이름을 쓰고 간 사람이 누워 있다.

Here lies One Whose name was writ in Water.

이름은 오래 남기기 위하여 종이 등에 쓰는 것인데 이를 물로 썼다면, 쓰나 마나가 아니겠는가? 이는 모순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묘비에 새겼으니, 물로 쓴 이름은 쓰나 마나인데 이것이 또한 돌에 오래 남게 되었으니 이 또한 모순이다.

그의 시는 바로 그의 모순을 모순 그대로 있게 하는 그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나온 기록이다. 그의 <빛나는 별이여 Bright Star>라는 시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순어법적인 상황을 보기로 하자.

빛나는 별이여

빛나는 별이여, 내가 너처럼 한결같았으면—
 밤하늘 높이 걸려 의로이 빛나며
 영원히 눈을 떠서,
 자연의 잠자지 않는 참울성 있는 운둔자처럼,
 대지의 인간이 사는 해안 돌레를 깨끗이 씻어 주는
 사계의 일을 하는 출렁이는 바닷물을 지켜보거나
 혹은 산과 황무지 위에 새로이 부드러이 내린
 눈의 마스크를 응시하면서가 아니라—
 아니—그렇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항상 변함없이,
 내 아름다운 애인의 무르익는 젖가슴을 베개삼아
 영원히 그 부드러운 오르내림을 느끼면서,
 영원히 달콤한 동요 속에 잠겨어
 언제나 영원히 부드러이 들이쉬는 그녀의 숨결을 들으며
 영원히 살았으면, —그렇잖으면 기절해 죽었으면.

8) John Keats, *The Letters of John Keats, 1814~1821*, ed., Hyder Edward Rollins, (Harvard U.P., 1958), Vol. II, p. 193.

BRIGHT STAR

Bright star, would I were steadfast as thou art—
 Not in lone splendor hung aloft the night
 And watching, with eternal lids apart,
 Like nature's patient, sleepless Eremite,
 The moving waters at their priestlike task
 Of pure ablution of earth's human shores
 Or gazing on the new soft fallen mask
 Of snow upon the mountains and the moors—
 No—yet still steadfast, still unchangeable,
 Pillowed upon my fair love's ripening breast,
 To feel forever its fall and swell,
 Awake in a sweet unrest,
 Still, still to hear her tender-taken breath,
 And so live ever—or else swoon to death.

이 시를 살펴 보면 우리는 Keats 시에 나타나는 모순어법의 재미있는 측면을 볼 수 있다. 이 시의 클라이맥스는 <영원히 달콤한 동요 속에 잠깨어>인데, 이 시행의 핵심은 바로 <달콤한 동요 sweet unrest>라는 모순 어법이다. unrest는 오르내리는 동작으로 봐서 <동요>라고 번역했으나, 이는 또한 마음의 <동요> 또는 <불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달콤하>다 한다면 이는 분명히 모순어법이다. 이러한 모순어법이 핵심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이 시에서 보기로 하자.

Keats가 염원하는 바는 밤 하늘에 높이 걸려 있는 한결같이 빛나는 별이다. 별은 시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이나 영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이 있기는 하나, 외롭다는 측면에서 인간과는 거리가 먼 존재이므로 인간의 고뇌 속에서 고민하고 항상 변하는 삶을 사는 Keats에게는 그렇게 전적으로 탐탁한 존재는 아니다. 더구나 별이 하는 일은 하늘 높이 떠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응시하는 것이므로, 별은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초월한 세계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Keats는 별과 동일시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별의 이와 같은 불변성만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그가 염원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그의 염원은 특히 변화와 생성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애인의 무르익는 젖가슴>과 대비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한결같은 별>과 <무르익는 젖가슴>—이는 영원과 시간, 불변과 변화라는 두 가지의 다른 세계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시의 화자는 <무르익는 애인의 젖가슴을 베개 삼>고 누워서 <영원히 그 부드러움을 느끼>고 싶어한다. 여기서 <영원히 forever>라는 말은 바로 별의 한결같은(steadfast) 특성의 전이(transfer)이다. 그렇다면, Keats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성과 변화를 나타내는 <애인의 무르익는 젖가슴>이 별처럼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곧 영원과 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특성이 모순어

법으로 융합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이 바로 <달콤한 동요>라는 모순어법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이다. Keats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 인간을 초월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와 생성의 세계인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 같이 있기를 바랐으며, 그것이 바로 애인의 젖가슴을 베개 삼고 누웠을 때의 그의 염원이기도 하다.

Keats의 모순어법은 그의 시에서 모순어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시에 자주 나타나는 공감각(synesthesia)은 바로 그의 이런 모순어법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이 자극되었을 때 둘 또는 그 이상의 감각이 자극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리를 듣고 색깔과 무게를 느낀다든지, 향기에 의하여 색채와 소리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이러한 공감각의 예로 흔히 Keats의 <나이팅제일에 부치는 노래 Ode to a Nightingale>의 두번째 연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든다.

아 오랜 세월 깊이 파인 땅속에서 냉각되어
 플로라와 시골 목장, 춤,
 프로방스의 노래와 햇빛에 탄 환희가
 맛도는 포도주를 한 잔 했으면!
 아 따뜻한 南佛로 가득찬, 진짜
 진홍의 히포크린靈泉으로 가득찬,
 잔가에 염주방울이 웅크하는
 주둥이가 자춘빛으로 물든 술잔을 한 잔 했으면
 그래서 술을 마셔 내가 이 세상을 남몰래 빠져나가
 너와 함께 어슴프레한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으면:

O, for a draught of vintage! that hath been
 Cooled a long age in the deep-delved earth,
 Tasting of Flora and the country green,
 Dance, and Provençal song, and sunburnt mirth!
 O for a beaker full of the warm South,
 Full of the true, the blushful Hippocrene,
 With beaded bubbles winking at the brim,
 And purple-stained mouth;
 That I might drink, and leave the world unseen,
 And with thee fade away into the forest dim.

여기서는 포도주 한 모금을 맛 봄으로써 꽃과 시골의 푸른 목장을 보고, 거기서의 춤을 느끼며, 노래를 듣고, 포도송이가 햇빛에 익어가는 따뜻한 느낌까지를 모두 공감각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각은 다른 감각과 서로 엉켜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러한 감각을 이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모순어법적이다.

Keats의 시에 나타나는 많은 모순어법과 모순어법적인 표현은 《하이페리언의 몰락 The

Fall of Hyperion)이라는 그의 장시에 나타난 시의 여신인 Moneta의 얼굴 묘사를 살펴 보면 그 연유를 알 수 있다. 이 시는 한 몽상가가 시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의 클라이맥스는 이 몽상가(Keats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가 친신받고 끝에 Moneta의 얼굴을 보는 장면이다. 몽상가가 Moneta의 얼굴을 봄으로써 그녀의 능력을 이어 받아 시인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녀의 얼굴은 흰색이지만 여러 가지의 흰색의 색감을 혼합하고 화해한 색이다. 즉, 흰색은 죽음의 색인 동시에 삶의 색이며(죽은 사람을 위해 흰 옷으로 소복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의 살색은 흰색이 주조이다), 병과 건강, 참나와 영원의 병치이며 통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Keats는 시의 본질을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요소가 병존해 있는 모순어법적인 상태로 본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곧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억압이 배제되고 이항대립이 해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모순어법을 포스트모던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색이 이성중심을 배격하는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억압의 배제라면, 모순어법은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특질은 Keats의 시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negative capability라는 말로 모순이 배제되지 않고 모든 상반된 요소들이 억압되지 않고 병존하게 되는 능력을 지칭하고 있다. 동양에서 모순어법적인 상황과 모순어법이 발달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negative capability를 허용하는 문화의 소산일 수 있다. 이는 곧 장자와 선에서의 <빔 sunyata>와 통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겠으며, 단지 이런 측면에서 동양적인 빔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억압의 해소는 서로 맥이 닿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Abstract》

A Postmodernistic Approach to Oxymoron**Chong-Ho Lee**

One of the most basic assumptions of the Western thought has been that anything or everything can be explained through *logos*, or reason. This attitude can be termed as logocentrism in the sense that this paradigm is solely based on *logos*.

What *logos* has been doing in the West is quite interesting. First of all, it has been trying to categorize very neatly things in the world that defy both neatness and categorization. The world out there is sometimes a jumble of things that are simply beyond the grasp of the reasoning power. When things cannot be categorized neatly, then reason represses and oppresses the elements that do not obey the dictatorial sweep of reason. In a word, logocentrism is a very cruel way of suppressing the un-reasonable.

Categories like oxymoron, irony, paradox, and the like are not compatible with logocentric ways of doing things. These terms have in common de-centered-ness as their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The oxymoronic expression, "pleasing pains," for example, has a de-centering barrier in its midst. There is no logical or reasonable connection between the two constituting elements of this expression. This element of unreasonable discontinuity in oxymoronic expressions has long baffled many New Critics, even though they very much liked paradox as a literary device.

Then comes along postmodernism. Postmodernism thrives on disconnections and un-reasonable-ness. It does not theorize about things irrational but lets them be as they are. A new look at oxymoron, then, is in order, afforded by a new way of looking at things from a postmodernistic point of view. This new way of looking at oxymoronic expressions and situations can be both stimulating and exhilarating, eliminating the stranglehold placed on them by the long-standing logocentric tendency of New Criticism.